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회기명 :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답변일 및 순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변부서	답변자
2010. 12.2(목) 10:00	1 이정임 의원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엑스포지원단,투자유치담당관,지역개발과,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취합작성)	부 시 장
	2 오선균 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 및 위탁자 선정방법은? (시설명, 수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근거 등) - 민간위탁 보조금현황(국비,도비,시비,자부담) 및 정산결과와 시설별 관리감독 실적은? -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개선대책은?	사회복지과	행정복지 본 부 장
	3 신철성 의원	농가 소득 작목 개발보급 및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 제천시 농가 소득 작목 개발보급실적 -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종자 공급현황	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 센터소장
2010. 12.3(금) 10:00	1 조덕희 의원	제천시 경관 숲 조성대책에 대하여? (산림공원과) - 경관 숲 조성실적은? - 향후 경관 숲 조성계획은?	산림공원과	산림공원 과 장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 2010년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예산집행현황 (집행내역 포함) (평생학습체육과) - 산림욕장 시민이용공간제한에 관한 대책은? (산림공원과)	평생학습 체육과 (취합작성)	행정복지 본부장
	2 양순경 의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방안에 대하여? (환경과)	문화관광과 환 경 과	제천시장 행정복지 본부장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이 정 임 의원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답 변 자	제천시 부시장 윤 재 길
제 목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계획
<p><u>질문요지</u></p> <p>○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하여?</p>	
<p><u>답변내용</u></p> <p>○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난 7.1일 민선5기 성공경제 제천호를 시민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이르러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p> <p>○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한방 건강도시 제천, 성공 경제도시 제천”을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천시 공직자 모두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p> <p>○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엑스포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는 현장행정과, 14만 시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p>	

○ 제천시의회에서도 한방Bio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 실적 및 제2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방Bio엑스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방Bio엑스포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국제행사로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2010. 9. 16 ~ 10. 16까지 31일간 한방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 총사업비는 283억원(국비 50억, 도비 70억, 시비 95억, 조직위원회 수익금 68억)으로 행사를 치러냈으며, 기구로는 조직위원회 2본부, 8부로 구성된 52명의 조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면, 추진실적을 5가지로 대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장 조성과 전시연출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 행사장 조성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532,490㎡로 임시시설구역과 영구시설구역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임시시설물로는 미래한방관, 약초탐구관, 명문한방병원관, 전통한의원, 엑스포극장 등 시설과(자료1),

- 영구시설로는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특산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한방어린이공원, 엑스포시장부지 조성공사 등 총55,644백만원이 되겠으며(자료2), 한방생명과학관 유료관람객은 4,298명(엑스포기간 중 제외)이 되겠습니다.(자료3)
- 이 밖에 펜스시설(2,388m), 조경수 식재(533주), 초화류식재(7,500㎡), 약초원 조성(1,384㎡/32종) 등을 통해 엑스포장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엑스포장 주변에 약초경관 조성사업(13농가 61,538㎡)으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약초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자료4)
- 전시관 중 미래한방관과 한방생명과학관은 주제전시관으로 한방의 미래 및 건강한 삶의 방향제시와, 한방의 문화역사 및 우수성을 재조명하였으며, 약초전시관은 입체적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 전통한의원과 한방명의관에서는 국내 명의 상담·진료 등 체험관으로써 관람객들이 매우 선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 명문한방병원관은 우리나라 유명 한방병원인 세명대, 경희대, 원광대, 대전대, 자생한방병원 등 7개병원을 유치하여 진료, 상담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 산업관은 경남제약 등 의약품 6개업체, 화장품 4개업체, 의료기기 19개업체, 식품 14개업체와 중국과 파키스탄의 17개 해외업체 등 총 60개업체를 유치하였고,

- 세계전통의학관은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아마존, 가봉 등 15개국이 참가하여 나라마다 고유 전통의약을 홍보 체험토록 하였으며,
- 한방특구관은 한방특구지자체와 중부내륙 중심권행정협력회 시군, 한국생약협회, 미래한방연구소 등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특산품 및 한방바이오제품을 전시 홍보하였습니다.
- 행사 종료후, 임시시설 철거에 따라 미래한방관 및 약초전시관 등의 전시시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기증약재품은 제천시로 목록을 작성, 이관(보완)하여 향후 재전시 계획이며, 고압블럭(23,684㎡)과 조경수(334주), 파라솔(38개) 등에 대하여는 조직위에서 우리시 각부서에 소요신청을 받아 수요처에(제천시 공용활용 우선) 배정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 한방생명과학관의 향후 계획은 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업체의 운영 자금난 등이 겹쳐, 관리 및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정상운영이 되도록 계약조건 이행 등을 신속히 조치하여, 모든 것이 정상화 되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사운영과 한방음식 가치제고 및 학술회의 개최 실적입니다.

- 31일간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1일 총 829명에 이르는 인력으로 행사운영을 하였고,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이동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진료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 또한, 행사장 방역활동, 환경관리, 원활한 교통 및 숙박대책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엑스포장에서 제천역까지 매 15분 간격으로 대형 셔틀버스(45인승 7대)를 운행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이벤트 행사로는 엑스포극장에서 악극, 울고 넘는 박달재와 뮤지컬 허준을 공연하여 28,332명(악극 31회 22,253 / 뮤지컬 15회 6,079)이 관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한방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 약초조형물 놀이, 아로마방향제 만들기, 한방족욕, 사상체질 자가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 한방음식 명품화 및 브랜드 사업을 위해 약채락 비빔밥 등 사업화 업체 양성 9개소, 한방음식 활성화 마케팅 사업 38개업체, 한방약선음식 전문가 양성 18회 2,600명, 약선음식 전시회 2회 등 총560백만원으로 한방음식의 가치를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자료5)
- 학술회의는 청풍리조트에서 국내외 한방관련 석학, 전문가 등 2,000여명이 참여한, 봉한학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4종과, 전국한의학 학술대회 등 국내행사 4종으로 총8종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관람객 유치 홍보 및 입장권 판매 실적입니다.

- 엑스포 관람객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 장나라 등 4명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였고, KBS 등 11개 방송매체 광고 694백만원, 언론홍보 351백만원, 온라인 홍보 313백만원, 주제영상물 제작 261백만원, 서울지하철 및 광역버스 옥외광고 575백만원 등 10여개 유형으로 총5,014백만원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하였습니다.(자료6)
- 이외에 관람객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로는, 학생관람객 유치를 위한 초중고교장 협의회 방문, 일반 및 외국인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람객 팸투어, 공식여행사 등을 선정하여 관람객 유치를 전개하였으며, 전국지자체 홍보전담제, 시민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
- 당초 105만명의 목표를 훌쩍 넘는 136만명(유료관람객 682,716명, 무료관람객 677,502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682,716매(사전판매 531,493 / 현장판매 151,223)의 입장권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자료7)
- 고속도로 및 국도변, 시내 홍보매체로 설치하였던 홍보선전탑 5개 및 홍보현판 55개(국내 53, 국외2) 등에 대하여는 행사후 대부분 철거 하였으며, 제천IC 및 고속도로변 대형야립광고판 화면교체 건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급적 추경 및 2011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엑스포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로는

- 조직위원회에서는 총6개 유형의 수익사업을 추진하였는바, ①입장권판매사업 4,833백만원 ②후원금 1,250백만원 ③회장사업 116백만원 ④시설임대 316백만원 ⑤공연수익 100백만원 ⑥이자수입 217백만원으로 총6,832백만원의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 엑스포 기간 중 엑스포장에 입점했던 민간업체의 매출실적을 보면, ①특산품판매장 12개업체 1,715백만원 ②한방한우프라자 1개업체 440백만원 ③한방제품전시판매관 32개업체 1,780백만원 ④제천한방음식관 6개업체 426백만원 ⑤기념품점 7개업체 310백만원으로 총4,671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 그 외에 엑스포 추진으로 인한 간접경제효과 등은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성과분석 용역 중에 있는바, 성과물이 나오면 추후에 보고회를 통해 공표될 것입니다.

다섯째, 한방Bio엑스포 잉여금 처리방향입니다.

-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직위원회의 가정산 결과, ①총수입액은 28,332백만원(보조금 21,500 / 자체수익6,832)이며 ②지출액은 26,887백만원으로 ③집행잔액은 1,445백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잉여금 처리방향은 우리시와 충북도 및 조직위원회가 상호 협의를 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의결을 거친 결과, 결산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 후,
- 2011년 우리시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잠정)을 설립할 경우 잉여금 전액을 이전하여, 향후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나 세계약초축제 또는 한방바이오산업의 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한방Bio엑스포의 성공 개최는 우리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일구어 낸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 한방산업은 제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을 넘어 세계 제1의 한방산업도시로, 또한 세계대체의학의 전진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제2산업단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제2산업단지는 총괄공정 85%를 보이고 있으나, 엑스포 행사 개최장소 지원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득이 2011년 6월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충청북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말까지 용지분양 및 공장입주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 총면적 1,299,255㎡중 산업용지가 836,440㎡으로 약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선분양을 추진한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준공 전 약 29%의 분양을 이루었습니다.
- 제2산업단지에는 현재 분양된 3개 업체는 설계 및 건축 중으로, 먼저 (주)영월드는 500억원을 투자하여 200여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1차 공장을 준공후 가동 중이며,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 한방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인 (주)아워홈이 내년 중 착공예정입니다. (주)아워홈은 2천2백억원을 투자하여 79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 최근 11월 분양한 (주)푸른촌은 풀무원에 전량 납품하는 두부제조 식품공장으로 80억원의 투자와 40여명의 생산직 직원 채용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제2산업단지의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2산업단지는 제천시의 성장동력의 견인차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실현 할 중추기지로 2011년도 100%분양을 목표로 시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일원화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현재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의 분리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해서, 투자유치담당관과 기업지원팀을 한데 아우르는 경제과를 신설하여, 보다 나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또한 기업 활동에 역량 있는 6급 상당의 투자유치자문관을 공개 채용하여, 기업정보 수집 및 타깃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투자유치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유치 차별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제2산단의 분양가를 수도권에서 인접한 산단 중 가장 저렴한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억원 및 충북도로부터 산단내 기반시설비 11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지원받아 당초 3.3㎡당 40만 6천원이던 분양가를 34만 8천원으로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충주기업도시보다 13만원 정도, 원주기업도시와 비교하면 35만원정도 저렴하여 분양추진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신속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유치 투자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별도 예산편성 없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되면 즉시 지원하여 조기에 공장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당초 3.5%에서 4%로 확대하겠으며, 자금 규모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하였고, 기업당 지원금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업 맞춤형 산학 인력양성사업으로 대원대학 제약학과를 신설하여 제약회사의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관내 기술계 고등학교와 산학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하여, 방학기간 중 기업연수 현장체험으로 졸업 후 즉시 입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거주 미취업 대학생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 청년인턴 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인근 지자체에 비해 3년간 혜택이 긴 법인세 감면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충주, 원주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지만, 우리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낙후지역으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총 3년간의 세제 연장 혜택이 있습니다.

- 인근의 충주, 원주와 비교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열세에 있지만 우리 시의 이러한 차별화 된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방Bio엑스포 성공 개최도시로 제2산업단지를 한방특성화단지로 집적화 하기 위해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는 한방·바이오·제약 산업을 중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제약관련 협회와의 인맥네트워크 형성으로 세미나 및 월례회에 제2산단을 적극 알리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기존 입주한 제약회사를 통해 이전 대상기업을 물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관내에는 자동차 부품관련회사 4개업체 800여명이 고용되어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지대하므로 관련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베어링 제조회사인 제2산단 입주업체인 (주)영월드와 (주)일진글로벌, (주)박원, (주)화영 오토텍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규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유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러한 전략산업유치와 더불어 아워홈과 같은 식품관련 대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홍보전략으로는 제2산단 홍보책자와 기업이전 설문지를 제작하여 산업별 주요 타깃기업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 가능업체 및 관심업체를 파악해 직접 방문하여, 단지 조성내역, 인센티브 등의 자료제공과 현지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 또한, 협회별 세미나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를 추진 하겠으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벌일 방침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대상기업으로 이전조사 설문지 송부 및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 관내기업과의 전략적 유치협조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협력기업 이전동향 및 투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리시는 기업유치 전담으로 하는 투자유치자문관을 수도권에 상주토록 하여 당일 기업유치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기동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수도권규제완화 및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기업들의 지방투자여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개통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이러한 기업유치 어려움을 극복 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 시민, 공무원,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⁹ 우리시가 엑스포에 이은 또 한 번의 성공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문의원명	오 선 군	소속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제천시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제 목	사회복지 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p>질문내용</p> <p>□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 및 위탁자 선정방법은? (시설명, 수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근거 등)</p> <p>□ 민간위탁 보조금현황(국비,도비,시비,자부담) 및 정산결과와 시설별 관리감독 실적은?</p> <p>□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개선대책은</p>			
<p>답변내용</p> <p>행정복지 본부장 윤종섭입니다.</p> <p>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시설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 먼저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민간위탁 시설 및 위탁자 선정방법입니다.</p>			

○ 제천시 사회복지분야중 민간위탁사업은 【붙임 표1】 과 같이 21개 사업으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시설이 15개로 주로 복지관 및 센터에 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개인 6명에게 위탁한 시설은 6개시설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 위탁자 선정방법에서 자활근로사업 및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3개 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정위탁사업으로 1년 또는 3년 단위로 재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중 씨튼어린이집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있어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위탁을 하였으며 제천시영원한쉼터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가 개정되어(2008.05.26) 인근 마을인 송학면 포전리 주민들과 협약에 의하여 위탁을 지정하였습니다.

○ 나머지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재위탁시는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립보육시설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3년의 위탁기간 후에도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탁기간은 통상 1- 3년간 위탁을 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 등에 의한 경우외에는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 시설 위탁 방법은 개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지정위탁이나 협약에 의한 위탁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공모를 통하여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개공모를 통하여 위탁하고 위탁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사업 및 시설은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시설로 재위탁시 위탁 희망자의 난립과 과다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탁 기간 중 위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운영능력의 부족 또는 회계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운영 능력이 검증될 경우 복지사업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위탁을 통하여 복지사업과 시설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나 시설의 위탁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등)과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개공모를 통하여 엄정한 심사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보조금(국비,도비,시비,자부담) 및 정산결과와 시설 별 관리감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보조금은 2010년분은 아직 회계연도 중이라 정산결과가 어려워 2009년도 정산분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표2】와 같이 총 4,887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186백만원이며 도비가 795백만원, 시비가 1,904백만원으로 시비가 전체보조금중 38.9%를 차지하여 복지시설 운영비 대부분을 국·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민간위탁 시설이 국도비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 국가 및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순수시비로 지원하는 시설은 희망나눔콜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분권교부세), 사랑의 집 등 3개 시설입니다.

○ 자부담은 총액이 985백만원이며 이중 법인 전입금이 136백만원, 후원금이 465백만원, 기타 384백만원으로 기타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지원비 및 이용자 부담금 또는 수강료입니다.

○ 자부담중 기타 수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에 의한 사업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기타수입은 사업수익금으로 참여자의 부담금이고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의 기타수입은 이용자의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법인전입금을 살펴보면 종교법인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법인 전입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종교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도를 알 수 있으며 후원금은 총 465백만원중 전체 후원금의 반이상인 239백만원이 제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후원되었습니다.

○ 보조금 정산결과는 표2와 같이 대부분 소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보조금 집행사업의 대부분이 원활하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보조금은 사업목적별로 지급되고 사업비가 넉넉하게 지원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많지 않으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의 집행등 자금집행과 운영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자활센터등 일부 수탁기관은 중앙회 및 법인에서 수시·정기감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고 관련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수시점검이 있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부정 및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기간이 통상 3년 이내의 짧은 기간이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위탁 보장이 없으므로 장기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우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장기적으로 위탁시설에 대한 투자나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복지시설이용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및 저소득층으로 수탁자가 자주 변경될 경우 운영과 프로그램 및 이용자가 시설에 대한 친밀감과 동질감을 갖기 어려워 수탁자의 잦은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하지만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존의 수탁자를 재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가급적 재지정하고자 하나 수탁단체와 법인의 실적과 이해관계로 공모시마다 불협화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수탁기관 희망과 선정상 수요공급의 문제며 특히 갈등까지 비화되는 점이 현재 민간위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지분야가 단기간 급성장하면서 이용자의 증가와 복지욕구의 증대로 복지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시설간의 비교우위 및 지원규모 인력운영, 위탁시설 규모등 외적, 물리적 비교로 수탁받은 법인간 갈등과 기존 위탁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타 법인의 신규신청에 따른 갈등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애로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신규 진입하려는 법인 및 단체와 기존 운영단체간의 갈등에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함께 이해관계가 얹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을 지도해야하는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지도에 어려움과 자칫 구설에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재지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신규 복지사업인 경우 공모를 통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원칙을 유지하며 엄격한 심사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앞으로도 민간위탁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병행하여 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시 공모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수탁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질문의원	신철성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지 동 현
제 목	농가 소득작목 개발보급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천시 농가 소득 작목 개발보급실적
-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종자 공급 현황

답변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농업·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 소득작목 개발보급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천시 농가 소득 작목 개발보급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약초재배 기술보급입니다.

- 약초분야에 있어서는 우수 한약재 GAP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과 직결된 황기 123농가 85ha에 대하여 높은 이랑재배, 적심재배, 씨비닐재배, 근권부위 확보 기술을 보급하여 관행재배보다 30%이상의 고품질 황기를 증수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 감초는 35농가 30ha에 대하여는 높은이랑재배, 육묘정식방법개선, 순지르기,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하여 감초재배 불모지에서 고품질 감초재배를 성공하여 한국인삼공사에 42톤을 납품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 지황은 42농가 20ha에 대하여는 높은 이랑재배, 파종시기조절, 멀칭재배 기술을 보급하였고, 천궁 46농가 30ha에 대하여 재배적지, 재식거리, 파종시기 등을, 울무 58농가 34ha에 대하여 적심재배기술, 복분자 5농가 2.0ha에 지주재배 기술 등을 보급하여 새로운 한약재에 대한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새로운 품종과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산약 10개소 1.0ha, 신육성 품종 으뜸도라지 5개소 2.5ha, 인삼 10개소 5.0ha, 백출 3개소 0.3ha, 오미자 30개소 18.0ha, 황정 5개소 1.5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오미자는 관내면적 70ha로서 10a당 450만원 정도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중국산 한약재 가격의 상승과 국내한약재 생산량의 감소로 모든 한약재가 수직상승하고 있어 금후 한약재의 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품질 생산을 위한 탐라이스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쌀 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고품질 쌀 선호에 따라 그동안 질소질 위주의 쌀농사로 인한 미질 저하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바

- 2009년부터 시내동 및 백운면 방학리 일원에 32농가 52.6ha의 탐라이스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미질향상을 위한 시비를 개선하여 수확되는 탐라이스쌀은 단백질함량이 관행쌀에 비해 1%정도 낮은 6.5% 이하의 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완전미 비율도 관행재배 쌀보다 13%가 높은 95% 이상의 고품질 완전미를 생산하여 시중가격보다 20%이상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 원예·축산분야 기술보급입니다.

- 원예분야 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는 2001년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100평에 딸기 장희 품종을 시험재배 성공으로, 2002년 봉양읍 봉양리

정배수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여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딸기수막재배를 시작 하였습니다

- 2003년 겨울 영하 25도의 추운날 수막하우스 내부에 얼음동굴이 형성된 것을 보고 작목반원과 협의 얼음딸기로 명명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현재 19호 5.5ha의 면적에서 11월부터 수확하여 2011년 5월 하순까지 수확 제천얼음딸기브랜드로 유통되고 있으며, 3.3㎡당 5~1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시설원예단지에 천창환기시설 0.5ha, 딸기수막하우스 자동개폐시설 0.6ha를 설치하여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기술을 보급하였고,

- 신소득 작목으로 산간지인 송학 오미지역에 꼬마파프리카 0.2ha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재배기술을 투입 육성중이며

- 화훼 농가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국비 8천만원을 투입 콤베어 결속기, 잎털기 기자재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48%를 절감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에너지절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여 수출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 과수분야에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사과원 개원시 밀식재배로 인한 초기 투자비 경감을 위해, 소식재배로 전환하여 제천형 사과원 4.5ha를 조성하여, 밀식재배 투자비 254백만원 대비 소식재배는 135백만원으로 117백만원(약 46%)의 투자비를 절감 농가부담을 경감하였고, 사과원 관리시 유인작업을 최소화하여 노동력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탐프루트사업을 유치하여 백운면 꿈사과작목반 10호 23.7ha 의 단지를 중심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춰 과중 320g정도, 당도 14°Bx · 착색도 70% 이상이 되도록 품질 향상기술을 보급하여 96톤을 생산 서울중앙청과와 현대백화점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하여 센터 내에 과수 꽃가루은행 15평을 운영하여 200ha 면적에 꽃가루를 보급하여 품질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 2007년 ~ 2009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에 블루베리 시험재배 성공으로 소득작목으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0년 7농가 1.0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능성 과수 소득원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축산분야 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는

- 축산물의 위해 요소인 항생제, 주사침, 유리조각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을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20농가가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차별화하여 브랜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한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영양가가 우수한 유연청보리를 2009년부터 25농가에게 3.7톤을 공급하여 243톤의 양질의 조사료 확보와 고급육 생산에 기여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유연보리 품종을 20농가 3.0톤을 공급하였고 지역적응을 위하여 우호보리 80kg을 파종하여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을 위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1년 과정의 한우대학을 지속적 운영하고 있어 한우사육농가에게 새로운 사양관리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고급육생산을 위한 우수인력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농촌기술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 앞으로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촌의 어머니 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을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어 한방가양주 체험을 위한 미니가양주 시범사업을 봉양읍 명암리 산채건강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 2006~2008년까지 3년간 봉양읍 옥전2리에 마을주민의 80%인 24농가가 1,600평의 하우스에 곤드레를 재배하여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72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현재 곤드레 하우스 비가림재배 와 노지재배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체를 포함하여 건채, 장아찌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가공화로 부가가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과원 높은 곳 전정작업 및 초생관리 동시 작업기계” 개발을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로 공모를 통해 채택되어 2009년부터 2년간 62백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금후 농기계회사와 협약으로 대중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종자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보급종 종자는 농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물량을 파악하여 계획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물량을 시군에 배정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벼 98·감자 65·콩 26·보리 1·찰옥수수 0.4톤등 190.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 그 외 원종장산, 시험장산, 독농가산 종자를 확보하여 벼 600kg, 콩 1,500kg, 참깨 60kg, 찰옥수수 200kg, 들깨 10kg, 땅콩 10kg을 공급하였으며, 금후 신육성 품종이 개발 되면 신속하게 적응시험재배를 통한 농가 자율교환으로 우량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성의원님의 농가소득작목 개발보급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